



2012. 9월

오인회 소식

'있음'도 '없음'도 넘어서는 '그것'

"우리는 이미 '그것'이다"라고 하니깐 많은 이들이 '그렇다면 노력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이미 우리가 그것인데'라며 탐구를 회피한다. 이것이 바로 공(空)에 떨어진 것이다. 또 무심의 체험을 한 이후, 모든 삶의 에너지가 무기력해지며 '할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 역시 공에 떨어져 '없음'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언가가 '있는가?' 그렇지도 않다. 도달해야 할 어떤 대상을 찾는다면 이는 '있음'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것'은 있음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욕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탐심으로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얻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분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얻고', '잃는다'는 개념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헤메이는 가장 기본적인 장소이다. 거기서 빠져나오라.

- 越因 -



오인회 식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얻은 통찰이 있으신가요?

신비-통찰이라.. 터져나오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다가 중간에 억눌렀더니 몸이 병나네요.

선호- 뭐든지 붙들면 고정되고 고정된것에는 결림이 있다! 그게 좋다고 여겨지든 싫다고 여겨지든 심지어 깨어있기와 같은 마음공부마저도 생각에 붙들릴수있다는 것 매끄럽게 표현은 안되네요~^^

모과향기- 제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강렬했어요.

매력- 과거의 같은 일인데 마음에 힘을주지않았더니 과거의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지않았어요~ 그리고 좀더 마음을 살피는 작업과 감정이 변화하는모습을 느끼게되요~

카이- 두려움은 통제할수없는 어린아이의 방문과도 같습니다. 제멋대로 나의 공간을 휘젓고 끊임없이 나에게 놀아달라고 재촉합니다. 그아이를 밀어내거나 외면하면 사나와지고 집요해집니다. 그냥 내가 무언가 잘해보고자해결해보고자애쓰면 잘 안되고 그냥 내버려두면 잘 되더군요^^

타라- 나는 내가 아니다.

푸리- 고통이 밖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게 확실하게 관찰되네요. 관찰하는 자체만으로 고통이 덜해지는 것 같아요.

도널드- 늘 사무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6주간의 승진자 교육을 받게되어 벌써 5주차가 진행중입니다. 그렇게 행복할 것 같았던 교육기간의 지금 마음상태가 교육전 사무실을 벗어나고 싶었던 그때와 똑같습니다. 행복은 외부조건이 아닌 마음상태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기 심화과정에서 의지에 따라 자유 자재로 웃고 웃고 화를 내시고 행복을 느끼실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실 수 있던 월인 대표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자은- 몸은 인식할 수 없을 때 몸의 리듬이 깨짐을 발견 인식하지 못할 땐 병이라는 현상으로 표현. 몸 또한 의식. 무의식이 몸을 통해 의식되어진 것만 표현되고 있다면 무의식은 무엇일까요?

함양 강의장 완공 기념식이 열립니다



함양 수련원의 새로운 강의장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의장 완공을 기념하는 모임이 11월 10일 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17차 깨어있기™ 기초 과정이 진행됩니다.

일시 : 10월 12일(금, 오후2시)~14일(일, 오후3시)/2박3일

수강료 : 정회원: 39만원, 준회원: 40만원(숙식비 8만원 포함)

※ 홀로스 발기인 및 재수강자 50% 할인해서 24만원

※ 현금수입 없는 종교인, 학 생은 지역통화로 50%이상 대체

편집-번역위원은 25% 할인 단 숙식비 비적용

준비물 : 깨어있기 책자, 손바닥 크기의 미니화분(종류는 상관 없습니다), 통찰기록용 작은 수첩과 필기구, 세면도구 및 타올, 워크샵에 참여하시기 전에 [깨어있기-의식의大海]를 꼭 읽어보세요

감정다루기 (HEART™) 기초 및 심화 과정이 열립니다.

10월 13일 9차 홀로스 감정다루기(HEART™) 기초 과정이 진행되며 (토/ 오전10시~오후6시), 10월 20일과 21일 이틀 간 심화 과정이 진행됩니다(토, 일/ 오전10시~오후6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홀로스 연구소 후원을 기다립니다.

9월에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달 후원내역을 알려드립니다.

여행님 1만원 - 홀로스

이춘호님 5만 6천원 - 홀로스

후원안내

. 홀로스 발기인 및 미내사 평생회원 : 200만원 (신한 110-175-014610 이원규)

. 격월간 지금여기 회원 : 1년에 8만원 (전문회원), 5만원 (일반회원)(농협053-12-130081이원규)

. 홀로스후원 : 자신의 형편에 맞게 매달 일정금액 불입 (200만원이 되는 시점에 발기인으로 전환가능)

. 오인회 후원 : 자신의 형편에 맞게 매달 일정금액 납입 (농협 352-0406-2453-93 이원규)

. 기타 상주인원 활동 후원 : 농협 352-0406-2453-93 이원규

. 홀로스 후원 : 자신의 형편에 맞게 매달 일정 금액 불입(200만원이 되는 시점에 발기인으로 전환 가능)



췌이 인터뷰(하)

췌이님은 한의사로 일하고 계시며, 지난해부터 깨어있기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오인회 편집부에서는 췌이님을 만나 그동안 깨어있기 공부를 통해 일어난 경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계속)

근본은 알 수 없다

질 : 그렇군요. 그러면 그 후로는 어떤 것을 탐구해 오셨나요?

답 : 예전에 깨어있기를 접하기 전에는 ‘근본을 알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어요. 명상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숫구치던 여러 생각들이 사라지고, 어떤 느낌들이 있다가 그마저도 없어져 아무것도 없는 느낌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모름으로 가요. 그리고는 아무 의식도 없이 텅 비어요. 삼매에서 나올 때에는 다시 점점 무언가가 느껴지고 이어서 세상이 생겨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경험을 한 두 번 하다 보니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깨어있기를 접하기 전에는 그 부분을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나를 안다는 것이 그 상태가 되어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거라 믿었던 거죠. 의식조차도 없기에 아는 주체 또한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대상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뭔가를 채워 놓고 싶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다’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뭔지 알 수 없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질 : 그 점이 분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답 : 주의의 간격 좁히기 같은 연습을 하거나 계속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명상을 하던 것처럼 의식이 점점 미세해지는 것을 느끼다가 어느 순간 재채기를 심하게 하면서 급격하게 깨어나는 경험이 여러 번 있었는데, 당시에는 단순하게 나도 모르게 또 잠이 들었구나 정도로만 여겼었죠. 그런데 어느 날에는 예전에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이 서서히 인식되듯이 그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지 어떤지조차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상태에서 깨어나는 과정이 아주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면밀하게 의식되었어요. 어떤 아주 미세한 것이 처음으로 잡히던 그 순간에 ‘무언가를 의식한다는 건 이미 분리된 상태이다’는 통찰이 동시에 왔어요. 그건 내가 생각한 거라고도 할 수 없고, 그냥 일어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잡힌 후에 어떤 다른 느낌이나 생각들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세상과 통상적인 내가 생겨나고 그 후에 ‘방금 전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구나’라는 생각과 기억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 경험을 통해 근본은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됐어요. 근본이란 분리 없는 상태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주체와 그 대상이 있는 얹이라는 건 분리의 차원에서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 후로는 근본 또는 참나를 알고 싶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더 이상 근본을 안다는 표현 자체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깨어있기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통찰이 뭐였냐고 한다면 이거예요. ‘모든 의식과 현상은 분리가 있을 때에만 일어난다, 분리가 의식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모든 현상의 바탕에는 근본이 자리하고 있다든가, 현상이 있다는 것이 근본이 있다는 것의 증거이다... 이런 얘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저에게 와 닿지가 않아요.

질 : 그렇군요. 그런데 ‘나로서는 근본을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요?

답 :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데요. 그런 말을 누가 하느냐, 그런 통찰이 누구에게 일어났느냐는 질문 같은 거요. 답을 하자면 그냥 일어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통찰이 일어났을 때에는 나라고 할 게 없었거든요. 그 때는 분리를 통해 인식이 시작되는 거의 첫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어떤 실오라기 같은 미세한 움직임으로 시작되어 여러 느낌들이 생겨나고, 가벼운 생각들에서 점차 사실로 여겨지는 생각들이 인식되는 순서를 밟는데, 그 때에는 미세한 느낌과 함께 통찰이 그냥 딱하니 동시에 왔어요. 생각의 형태가 나타나기 전에 그냥 첫 느낌과 함께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일어났다고 하기도 참 애매해요. **나는 그 후에야 나타났으니까요.** 그 후로는 다시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고, 굳이 다시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도 없어요.

질 : 그렇다면 그런 통찰이 오기까지 그동안 깨어있기에서 다른 내용이 도움이 되었나요? 예를 들어 주의나 감지, 감각을 연습하고 믿음도 다루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스스로 명확한지, 그리고 그런 통찰이 일어나는 데 어떻게 작용했는지 궁금합니다.

답 : 감지와 믿음의 느낌은 분명해요. 감각은 제가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동안 감각이나 주의 중립, 주의 제로, 있음 등을 연습하면서 의도적으로 어떤 상태를 지속하려 하거나 계속 더 미세하게 들어가려는 노력을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런 통찰이 오기까지 깨어있기의 어떤 내용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내적인 감지를 파악하고 나서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느끼고 지켜보는 작업만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렇게 내면을 관찰하려는 의도가 점차 미세한 것들도 느끼고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그런 통찰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연습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깨어있기 전에 공부를 하면서 명상이나 '내가 있음' 속에 머물려는 노력을 하다보니 저절로 삼매 상태에도 들어가게 되고, 깨어있기에서 말하는 감각이나 있음, 또는 주의 제로 같은 것을 경험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의도해서 경험한 게 아니라 그냥 하다보니까 일어난 거였죠. 그 경험들이 깨어있기 기초나 심화과정에서 그것들을 좀 더 빨리 느낄 수 있게 해주었던 것 같고, 그 느낌을 대강 맛본 이후로는 오인회 때 한 번씩 하는 것 외에는 시간을 내서 연습하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다시 연습을 해서 명확히 느껴봐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깨어있기 책도 다시 한 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동일시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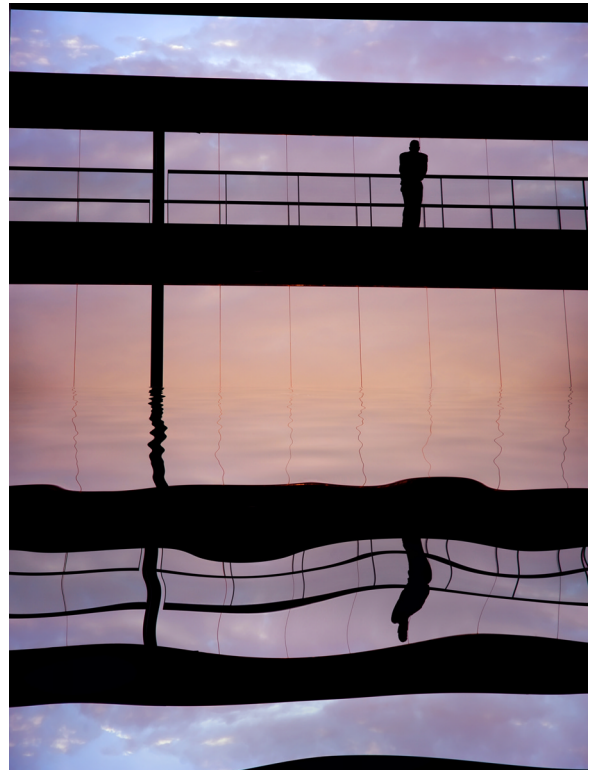
질 :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 또는 내면의 상을 인식할 때에는 동일시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답 : 생각이나 감정, 또는 내면의 어떤 상이 인식된다는 것은 '나'와 '대상'의 분리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중 '나'라는 것이 느낌으로 파악되지 않고 대상에 대한 것만이 느껴질 때 그 '나'에 동일시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를 하던 초기에 생각이나 감정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지려는 노력을 하던 때를 돌이켜보니,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휘둘리던 때에 비해 그 감정을 내려놓거나 제어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깨어있기를 접하면서부터는 그 화를 느낌으로 감지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감정에서 놓여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오인회에서 주체감을 다루면서 '화난 느낌'에서 더 나아가 '내가 화가 났다'는 느낌, 즉 화난 감정과 함께 그런 '나'를 같이 느끼게 되면 더욱 더 쉽고 효과적으로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별 상관없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화라는 감정이 느껴진다'와 '내가 화났다는 게 느껴진다'를 살펴보면, 언뜻 말로만 봤을 때에는 첫 번째 것이 '화가 난 나'로부터의 동일시에서 벗어난 보다 객관적인 상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번째 것이 동일시를 벗어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리하자면 동일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인식되는 순간에 '나'와 '대상'이 분리되었음을 즉각적으로 알고 동시에 그 둘을 느낄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나'와 '대상'을 모두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질 : 그렇다면 그렇게 동일시로부터 벗어나더라도 여전히 그 두 대상을 지켜보면서 미묘하게 남아있는 주체와의 동일시는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요?

답 : 나와 대상의 분열을 다룬 계절수업을 듣던 당시에 저는 '감지를 느끼는 것 자체로도 그로부터 자유로



워질 수 있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일시적인 나와 대상을 느끼는 것이 굳이 필요할까? 라고 여겼거든요. 최근까지도요. 지금 동일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생각해보니, 감정 등등의 무엇인가를 감지했을 때 하나의 느낌으로만 느낀다는 것은 동일시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처음에 느껴지는 순간에 생겨난 '나'와 '대상'의 느낌을 뭉뚱그려 하나의 대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그 대상에 대응되는 관찰자 같은 더 미세한 '나'에 동일시되어서요. '나'와 '대상'이 곧바로 다른 '나'와 '대상'으로 바뀌어진 또 다른 동일시가 일어난 것이네요. 이것은 무엇이 인식되었을 때, 자신을 관찰하려는 강한 의도가 나-대상에 대한 즉각적인 파악 이전에 먼저 작용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주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미묘하게 남아있는 주체와의 동일시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는데요, 이것도 같은 원리일 것 같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 '나'와 '대상'을 모두 대상으로 파악하듯이 아주 미세한 주체감마저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때 그 동일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그 동일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며 주의의 간격을 좁히는 연습, 또는 감지되는 것에 실린 에

너지를 빼는 연습 등을 하다보면 점점 뒤로 물러서며 주체-대상이 새로이 생성되고 사라지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있음의 상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거대한 침묵 속에 들어앉은 느낌이 들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느낌이기도 하구요. 에너지의 이동조차도 없는, 하지만 모든 에너지가 응집된 것 같은 무언가가 느껴지고, 또한 그것을 느낀다는 자체가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아는 것 같은데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수가 없네요. 그 존재감이 만들어내는 '나'라는 느낌이 대상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이겠죠. 그것이 가능할 때에 마지막 남은 주체감에서 벗어나리라 여겨지고, 이것이 모든 현상을 현상으로 본다는 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라 더 이상 생각으로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깨어있기를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답 : 아직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고, 인터뷰 기사를 보실 분들께 말씀드릴 만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인터뷰를 한다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제 생각이 많이 정리되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나보고 인터뷰하라고 하면 어찌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스스로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깨어있기 강좌를 들으신 분들을 오인회에서 더 많이 뵈었으면 하구요.

질 : 인터뷰 하시느라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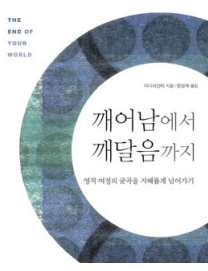
답 : 별말씀을요. 감사합니다.



세이님이 추천하는 책..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아디야 샨티 저 | 정성채 옮김 |정신세계사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 깨어남을 경험하고 있으며, 대중들도 영적 체험의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대중의 인식이 확장된 만큼 '깨어남'이라는 내적인 체험 또는 현상을 둘러싼 혼란과 오해와 왜곡의 가능성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아디야샨티는 영적인 주제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진 이 시대를 대표하는 영적 교사로서, '깨어남'의 본질과 그 이후에 흔히 나타나는 장애물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언어로써 가장 깊은 수준까지 펼쳐내고 있다.

깨어남이 무엇이 '아닌지'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더 이상 깨어남의 부산물만을 쫓아다니지 않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 수행을 통해 뭔가 긍정적인 감정상태를 얻어보려는 추구를 포기해야만 한다. 깨어남의 길은 어떤 긍정적인 감정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깨달음이란 전혀 쉽지도, 긍정적인 것이지도 않을 수 있다.

우리가 가지는 환영, 우리가 매달려 사는 신념이야말로 해탈쪽으로 열려 있는 통로이다. 우리는 그저 그 환영을 움켜쥐지도 않고 멀리하지도 않으면서, 그 안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되며, 동시에 그것에서 도망쳐서도 안 된다. 어느 모로 보거나 속박이 분명한 순간순간을 해탈로의 초대로 맞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결국 깨달음은,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일도 회피하지 못하게끔 만든다. 깨달음 관점에서는 삶의 어떤 부분으로부터도 고개를 돌리기가 어렵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해진다.

나의 눈

데이비드 호킨스 저 |문진희 옮김 |한문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영적으로 진화한 상태와 의식 연구 및 참나로서의 신의 현존에 대한 각성이라는 주제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으며, <나의 눈>에서는 내면에 숨어있는 신성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여행을 준비하는 여행자들이 길을 나서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을 소개하고, 자기 마음을 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습관화된 인과율을 넘어서서 향상된 압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신>의 본성에까지 이르는 깨달음의 여정에 대하여 기록했다.



영적인 진화는 새로운 어떤 것을 획득함으로써가 아니라 기존의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일어난다. 헌신하는 자세는, 마음이 소중히 여겨왔던 망상과 환상을 버릴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마음이 점차 자유로워지고 진리의 빛에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게 해준다.

더 높은 차원의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적인 '내'가 아니라 의식 자체의 한 측면이다. 그 측면은 영감과 헌신, 인내심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의지의 측면들이다. 그러므로 <참나>를 추구하는 원천은 <참나> 자체다.



영국에서 실천적 철학자로서 명성이 높은 줄리언 바니지는 '에고 트릭'이라는 저서에서 동서양의 철학을 넘나 들며 자아의 본질에 대해 탐구합니다. 저자는 특히 '무아'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아가 환상이라는 말은 자아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에고 트릭'에서 발췌하여 이번 호 소식지에 소개합니다.

chapter 8 : 자아는 환상인가? (200~211면)

*

배첼러는 지금까지 아나타(anatta)의 일반적 해석인 무아가 심중팔구는 틀렸다고 주장한다. 요즘은 많은 번역가들도 비아(非我, not-self)를 선호한다.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차이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배첼러의 설명을 들어보자. “아타(atta)는 자아, 즉 산스크리트어로 아트만(atman)을 의미하고, a-는 부정(否定)을 의미하는 접두어입니다. 그러므로 자아가 아니라는 ‘비아’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무엇이 부정되고 있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총카파가 말하는 ‘부정의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아타’라는 단어에서 무엇이 부정되고 있는가? 배첼러는 이를 이해하려면, 기원전 4세기 부처가 살던 인도의 환경과 시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처 시대에 아타 혹은 아트만은 전통 브라만(brahman) 사상의 핵심이나 마찬가지로였다. ‘브라만’은 비인격의 신성, 궁극적인 실재, 초월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사물의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런 브라만의 작은 조각이 우리 자아의 내부에 있다. 자아의 진정한 핵심은 아트만으로 이해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브라만이라는 실재와 구분이 되지 않는, 단일하고, 나눌 수 없으며, 근본적인 자각 혹은 의식이다. 하지만 아트만과 브라만 어느 쪽도 개별 인격 또는 자아와는 관계가 없다.

*



스티븐 배첼러는 부처는 바로 이런 브라만식 사고 전체를 부정했던 것이라고 말한다. “부처가 한 일은 이런 사고방식 전체를 통째로 부정하고, 아트만이 실은 허구요, 환상이라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나타라는 말을 하면서 부처는 아트만이 있다는 사상, 브라만이 있다는 사상을 부정하고, 현상세계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실제로 부처의 가르침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처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덧없고 우발적인 사건들, 비극적일 때가 많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펼쳐지는 들판이 있었을 뿐이지요.”

*

총카파를 연구한 톱텐 진파(Thupten Jinpa)는 “독립적이고, 영원하며, 시간과 관계없이 무궁한 통일 원리로서 자아의 존재는 환상이지만, 중관학파의 변증법은 현세계의 실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 “총카파는 어떤 식으로도 상식적인 자아와 정체성 개념을 거부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

*

자아는 환상이 아니다. 자아가 불변불멸의 본질이라는 생각이야말로 환상이다. 이런 환상을 버리면 불교에서 말하는 육체, 감정, 지각, 심적 작용, 의식이라는 ‘오온(五蘊,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한 것으로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으로 표기하기도 한다-옮긴이)’이 남는다. 배첼러에 따르면 자아는 “오온으로 환원되지도 않고, 오온과 동떨어져 별개로 존재할 수도 없다”. 말하자면 오온에 불과하지만, 단순한 오온도 아니다.

*

철학자 대니얼 데닛도 유사한 입장이다. 데닛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정신에 대한 인식을 “진실한 환상(veridical illusion)”이라고 부른다. “데스크톱 컴퓨터가 환상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드디스크에는 문서 아



에고 트릭 (Ego Trick)

편집부

이콘 같은 노란색의 작은 파일 보관철 따위는 없어요. 문서들은 하드디스크 곳곳에 흩어져 있지요. 컴퓨터 아이콘들은 알고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 알고 싶어 하지 않지요. 이는 ‘사용자 환상(user illusion)’ 이라고 불리는데, 상당히 적절한 표현이지 싶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어떤 종류든 ‘사용자 환상’ 이라는 것을 가진 유일한 종족이라고 단언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

데닛은 변치 않는 진주처럼 보이는 자아를 환상이라면서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자칫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거기에는 오래도록 유지되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실제 세계의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정성이지요. 테세우스의 배가 가진 안정성과도 다르지 않아요. 테세우스의 배에는 (변하지 않는) 핵심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보다 오래가는 일부 부품이 있고, 전체적인 구조가 있어서 계속해서 부품들을 교체해주면 40년 뒤에 봐도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임을 알 수 있지요. 그간에 부품 대부분이 교체되었다고 해도요. 40년 뒤에 우리가 알아본 것은 (교체되었어도) 과거와 똑같이 느껴지는 부품들뿐만 아니라, 부품들의 전체적인 구조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모든 부품이 교체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를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환상 논의에서 문제점은 대다수 사람들이 환상과 실재를 대비시키고, 자아가 환상이라는 말이, 그것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본다는 점이다. 하지만 자아는 실제로 존재한다. 분명 자아의 속임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뿐이다.

가장 간단한 비유는 구름이 아닐까 싶다. 구름은 멀리서 보면 경계가 선명한 하나의 물체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구름과 주변의 경계가 점점 흐려진다. 확실히 가까이 가면, 구름은 그저 작은 물방울들의 집합체임을 알게 된다. 이것이 구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당연히 아니다. 이런 사실은 구름이 솜뭉치가 아님을 의미할 뿐이다. 자아는 구름과 같다. 밖에서 보면 단일한 물체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안에서 느끼기에도 그렇다. 진실을 안다고 해서 자아의 겉모습이나 느낌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자아가 마술처럼 사라지지도 않는다. 진실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이 쉼 새 없이 변하는 유동물이며 불변의 알갱이가 아님을 깨달을 뿐이다. 통합된 단일한 실체로서의 자아는 환상이지만, 자아 자체는 환상이 아니다.



자아의 속임수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믿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실제보다 더 단단하고 영원한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환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는 환상이 있을 수 없다.

